

2008년 8월 29일 금 말씀

내가 대체의학을 한 40년 했는데 대체의학으로 하는 것은 약한 병일 때 하는 것입니다. 큰병이 올 것을 미리 막을 때, 작은 병일 때 하는 것이고 큰 병은 대체의학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의학을 주셨으니까 보다 큰 병은 병원에서 치료해야 합니다. 대체의학은 개인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병원가기 무서우니까 대체의학을 사용하는데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칼을 댈 때는 칼로 대고, 손톱으로 긁을 때는 손톱으로 긁어야 됩니다. 그런 단계를 보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연구를 안 합니다. 사람이 몇일만 얼굴에 화장을 안 하고 신경을 안 쓰면 바로 거칠어집니다. 그와 같이 의학도 신경 안 쓰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운동해주면 금방 체질적으로 내려갑니다. 운동 한 10분 했는데도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경 쓰면 다릅니다. 늘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해줄 때 그럭저럭 기도 안 합니다. 새벽3시부터 이름 적어 놓고 합니다.

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회원은 암이 2기가 넘어 이미 포기했는데 내가 전화했습니다. ‘내가 너 병 하나 못 고치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느냐? 그까짓것 정성 가지고 고치면 되는데. 내가 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 후에 물어봤더니 그 회원이 아직도 잘 살아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플 때는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더니 교회를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 내가 다시 나오라고 해서 지금은 나온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조금 편하면 드러누워 잠자고 또 편안하면 놀러가고 그럽니다. 군대에 있으면 놀러 안 가고 잠 안잡니다. 기도합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조금 추우면 달달 떨면서 춥다고 그러고 더우면 그냥 못 참고 덥다고 하고 이런 정신 사고들을 다 고쳐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주고 있으니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 본인들 보다 내가 더 많이 압니다. 알기 때문에 기도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 보다 잘 모르면 기도해준다 소리 못합니다. 본인만큼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바치면서 해야 낫습니다. 이번에 아토피 나운 서울 대 학생 간증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계속 기도해 줬었습니다. 이번에 너 아토피 다 나았지? 하니깐 어떻게 아셨냐며 놀랐습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니까 아는 것입니다. 본인도 아닌데 본인 보다 더 더 열심히 3만 번이나 기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3만 번 이상 기도했는데 안 낫게 해주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낫는 것이 뜻이라고 했으니 나운 것입니다.

섭리의 젊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나이 먹으면 병이 올 수도 있지만 젊었을 때 아픈 것은 본인들이 관리를 좀 잘 못한 것입니다. 체질적으로 옵니다. 아프면 하던 일을 놓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섭리에 아토피 환자를 위해 집중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약을 내가 찾아냈습니다. 이 약을 쓰면 아토피가 거의 다 낫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직접 발라봤는데 거의 다 나았습니다. 1주일 만에 다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정신 꺾이지 말고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해외선교는 본국에 있는 회원들 중심해서 하고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조정해주고 하면 됩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 사람이 해야됩니다.’

그 나라 체질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미국인들 선교할 때 제일 처음 예는 잡고 하다가 전부 넘겨주고 코치하다가 지금은 미국인들이 하라고 코치도 안합니다. 이런 것이 큰 일 하는 것입니다.

영국도 이제 잘 될 것입니다. 내가 처음 선교하러 갔을 때 진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옥스퍼드 근방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신입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때 영국에 갔을 때 한 여자가 열심히 따르겠다고 하는데 겁이 났습니다. 나는 여자가 막 쫓아다니면 늘 의식이 됩니다. 그 회원을 잡았어야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5년 동안 선교가 늦어졌습니다. 그 회원이 내가 수고한 대가였는데 몰랐었습니다. 목숨 걸고 쫓아다니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회원을 몰라봤습니다. 그 회원을 선교사를 시켰어야 했는데 4~5년 후에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수고한 대가가 바로 왔는데 잘 몰랐습니다. 그때 일본회원들 데리고 와서 한 달 동안 선교를 했는데 한 명이 늘 따라다녔고 그 회원을 겁난다,무섭다 하면서 의식하느라 전도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뜻이 있어서 바짝 들어왔던건데 전도를 안 했습니다.

말씀 전할 때 조그마한 무지개가 떴었습니다.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조그마하고 예쁘장한 무지개 하나가 딱 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도가 잘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잘 될 것입니다.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써 뿌리고 계십니다.

성경에 ‘네게 전부 그냥 주리라. 값없이 준다.’ 하셨는데 왜 값없이 준다고 하셨냐, 성경 잘 못 쓰신 거 아니냐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는 공짜로 안주시니 내가 맨날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을 받으려는 그릇이다, 그러니 그릇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도자기 그릇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뭘 담아줄게. 도자기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값을 다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받기위한 그릇을 장만하는데 들어간 것이다. 내가 구원의 값을 받으려면 내가 99%할인 해줘도 너희들은 1%도 못 낸다. 수천억이 아니다. 수백억조인데 낼 수 있겠냐?” 하셨습니다. 너무 뜨끔했습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값으로 생각하지 말라.’ 나이가 60이 넘었고 성경도 50년 동안 읽었는데 몰랐다고 너무 창피해죽겠다고 하니 너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르니 빨리 빨리 가르쳐주라고 하셨습니다.

월명동에 가을이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초소에 있는 사람들 잘 하고 무조건 막지 마십시오. 시골서 일하다가 한 번 가보겠다고 왔는데 막으면 기분이 참 나쁜입니다. 잘 오셨다고 잘 안내도 해주고 잘 쉬었다 가라고 하고 담배 같은 것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 조심해 달라하면서 남의 집 정원에서 피는 것과 똑 같다고 하고 성전같이 쓰는 곳이니 교회 안에서는 담배 안 피우지 않냐고 하면서 술과 담배가 금지되어있다고 잘 설명해주도록 하십시오.

목회 할 때 여러 사람을 잘 써주고 애들이 힘들어해도 야물대도 잘 대해주십시오.

마25/31-46(핵심성구마25/40,45)“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준것이 주님께 해준것이다”